

너와 내가 마주쳐,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정 책 간 담 회

#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기업화된 대학의 경쟁력

Q. 구조조정하면 진짜로 취업이 잘 돼?

Q. 사전트는 1억, 조교비는 6개월째 체납!?

#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학비에 대한 부담, 생활비의 어려움

Q. 국가 장학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고 있나?

Q. 등록금은 왜 올라갈까?

# 시대인식

: 대학 속의 사회, 사회 속의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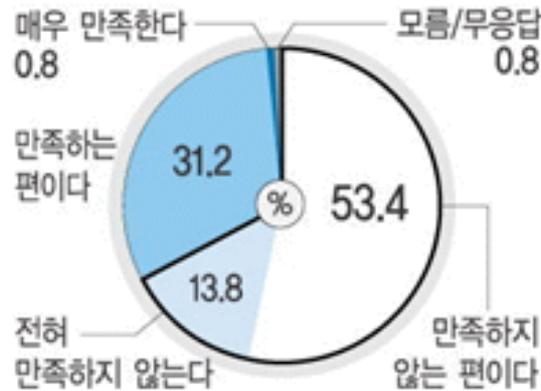
죽정원 시국선언과 대학

Q1. 의견수렴, 어떻게 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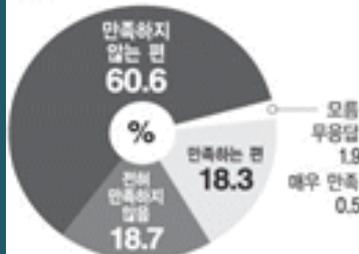
Q2. 죽정원 대선개입,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을까?

# 시대인식 : 사회 속의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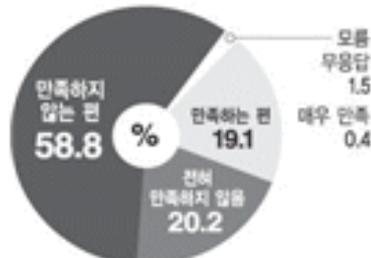
사회현실에 만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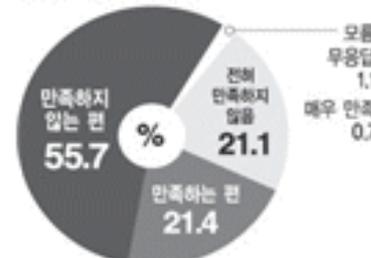
취업·정년 등 고용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현실에 대한 만족도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 대한 만족도



# 시대인식

: 사회적인 의식 지형



대학서 '자본론' 가르치던 강사, 국정원에 신고당해..

# 사회대 학생사회

: 안전하지도, 안정되지도 않은 우리의 삶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썼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내 삶의 좌표를 잃은 채 부유하지만, 꿈을 찾겠다는 이야기는 배부르고 허황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학교는 더욱 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라고 부추긴다.

취업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분노는 쉽게 잊혀진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타 단대생들은 사회대가 다른 단대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 사회대 학생사회

: 모두가 고민하지만 조용한 광장

상식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내에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었다.

학생사회 의사결정구조가 붕괴하면서 학생회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정당성이나 권위를 확보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결국 입장이 없는 사회대 학생회는 결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힘 있는 실천을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서로의 생각을 수치화된 통계로써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 사회대 학생사회

: 제한되고 약해지는 학생회

학우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들은 학업, 진로, 연애, 민주주의 등 매우 다양하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의 삶을 바꾸려는 학생회라면 밝은 곳만 비추는 복지에 갇히지 않는 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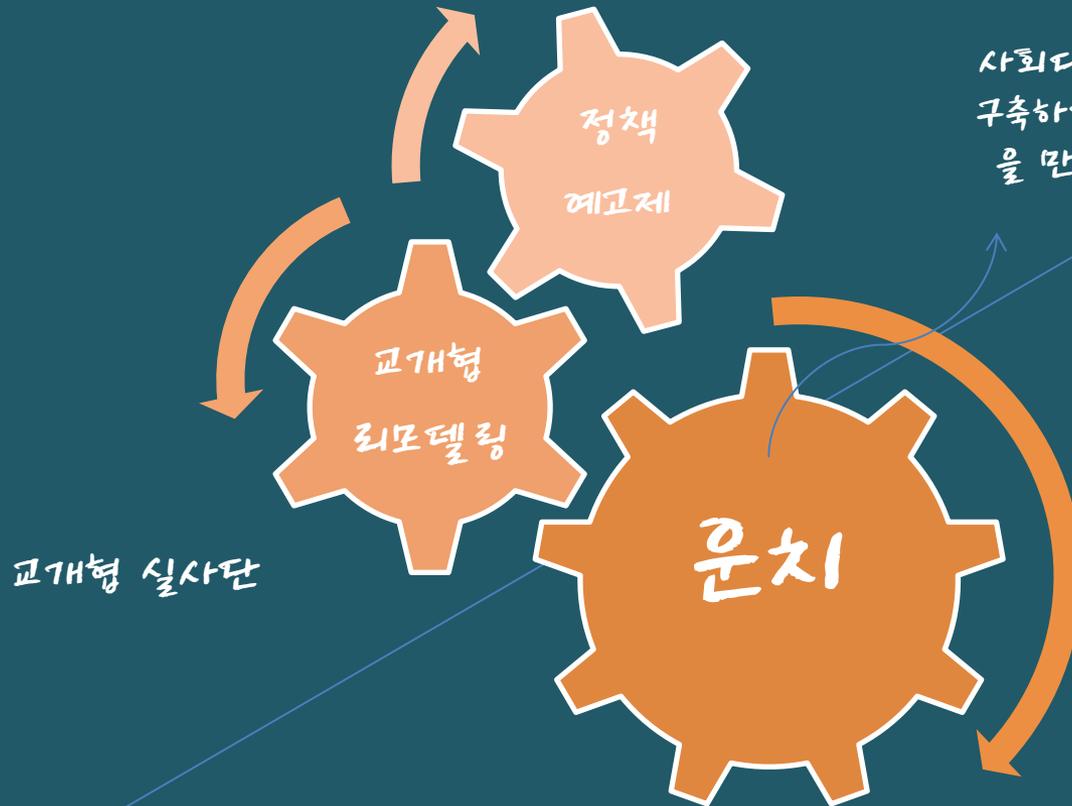
사회대 학생회는 복지를 전담하는 열 두 번째 반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열 한 개의 과/반이 서로 주체로서 소통하고 결집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의 경험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대안 / 정책

# 보다 살아있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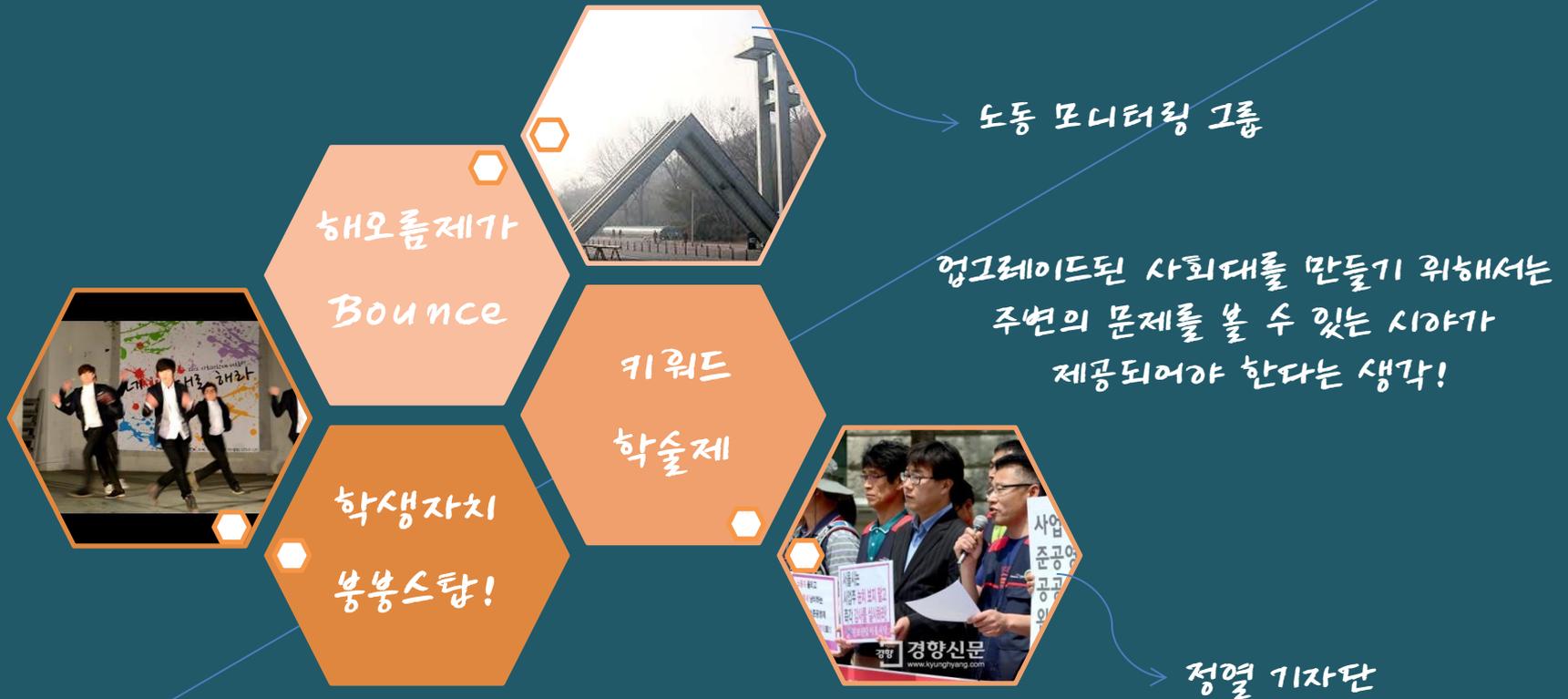


교개혁 실사단

사회대 학생회가 하나의 토론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장들이 반에서 토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래개'가 필요하다는 생각

보다 살아있는 의사결정과정으로 사회대의 심장이 Bounce!

# 함께 열어주세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대!



함께 열어주세요 보다 업그레이드된 사회대

# 2014년,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시아 연구소 유희공간,  
세미나실로 개편하겠습니다.



2014년, 일상의 변화를 만드는 마법,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각론] 교육 / 노동 / 페미니즘**

**[입장] 시흥캠퍼스**

**[입장] 34살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입장] 한 엄마 대학원생의 전화**

**감사합니다!**